



KC뉴스레터

QR코드를 찍어주세요

KC Newsletter vol.20



Networks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주주총회



[KC코트렐] 포스코 광양 5소결 배가스 청정설비 신설 준공

[KC 한미산업] 상반기 단합 산행대회



[KC정림환경] 한마음 산행

[KC코트렐] 제철사업부 WORK SHOP

[안성유리] 기술연구소 정부기술개발 과제 "제조현장 녹색화사업" workshop 개최



[KC 코트렐] 부산광역시 태양광 사업개발 협약식

[KC 코트렐] 부산광역시 태양광 사업개발 협약식



[KC] 인사동정

Customers

[제철소식] 파이넥스·선재·STS제강 공장 증설

Economic Trend

환율-일본발 약재의 그림자가 멀어지고 있는 지금, 환율 어디까지 무너지나?

원자재

KC Edition

KC코트렐 노동조합, 국내외 빈곤아동 결연캠페인 동참

사내동호회 소개편 ③ KC환경서비스 "海山會(해산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 마이 입니다!

안성유리 게시판 中에서 "칭찬릴레이 3"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주주총회

지난 3월18일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본사에서 KC그린홀딩스-제38회 정기주주총회, KC코트렐-제1회 정기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 1월 지주회사 분리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로 두 회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나 그 동안의 노하우로 안정적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배치 등 중요한 포인트를 세심하게 관리하였고, 주주들의 좌석 배치 등 서비스에도 신경을 써서 참석하신 주주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장을 맡으신 이태영 사장의 진행아래 2010년 결산안, 감사, 이사 중임 건 등을 승인하며 두 회사의 주주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hyunjoo@kcgreenholdings.com)



▷KC그린홀딩스 제 38기 주주총회, KC코트렐 제1기 주주총회 모습

[KC코트렐] 포스코 광양 5소결 배가스 청정설비 신설 준공

포스코 광양 5소결 배가스 청정설비 신설 준공식 행사가 3월11일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9년 1월12일 계약하여 2011년 2월 28일에 최종 납기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 최단공기의 5소결 공장입니다.

소결공장은 용광로 안에서 철의 환원작용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철광석을 일정한 크기의 소결광으로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KC코트렐은 소결공장 5호기의 Main Blower 후단에 탈황흡수제를 주입하여 황산화물을 제거하고 후단의 Bag Filter에서 반응 생성물 및 배가스 중의 먼지를 포집하는 탈황설비(De-SOx System)와 환원제인 암모니아를 주입하여 촉매반응기에서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탈질설비(De-NOx System)를 공급하였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감사패 및 준공식 모습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 한미산업] 상반기 단합 산행대회

지난 03월 26일 토요일, KC 한미산업 가족이 애사심 강화와 직원 간의 친목 및 소통을 위하여 한마음 극기 훈련 겸 경남 밀양시 소재 표충사 뒷편에 있는 재약산(1,115M)산행을 하였습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관계로 모든 직원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이강욱 대표이사님과 직원 일행은 회사에서 8시 집합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을 듣고 밀양 표충사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봄은 꽃샘추위가 계속 있어 남쪽인 창원, 밀양지역에도 꽃이 피지 못하고 개나리만 조금 피기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부터 시작한 산행은 급경사 산을 올라 2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하여 KC한미산업 가족의 건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재약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는 신불산, 동북쪽은 가지산 그리고 정상 밑에는 "사자평"이라는 초원지대가 영남 알프스라는 말대로 멋진 장관이었습니다.

점심은 준비해 온 생선회와 증무김밥으로 사자평 넓은 초원에서 맛있게 먹고, 하산하는 길에 증충폭포에 도착하여 아직도 녹지 않은 설경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흠뻑 매료되었습니다. 출발장소 표충사절 입구에 전원 낙오자 없이 하산 완료하고 막걸리 한잔으로

"신규 폐수공장 조기 정상화와 발전하고 변하는 KC한미산업을 위하여"

라고 건배하고 이강욱 대표이사님 인사말씀을 끝으로 산행을 모두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표충사와 재약산

표충사는 1,300여년전 신라 원효성사가 창건하시고 조선시대 사명대사님이 승병들을 훈련시킨 곳으로 영남지역에서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함께 유명 사찰이며 재약산은 영남 알프스라는 이름에 맞게 넓은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제말기는 일본인이 한우를 200두 넘게 길렀던 목장으로 지금은 없지만 분교 등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밀양 얼음골 등 여러 산행길이 있습니다.

KC한미산업 관리팀 안종길부장



▶재약산 산자락에서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정림환경] 한마음 산행

지난 3월 19일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에 위치한 곳에 있는 대각산 산행을 하였습니다.

산행코스는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199봉→월영봉→몽돌해수욕장→전망대→저수지→마을길→월영재→주차장까지였습니다.



▲산행코스

시작할 때에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지만 코스 하나씩을 완주할 때마다 뒤쳐지는 직원들, 땅만 보고 가는 직원들이 생기자 서로 도와주며 합심하여 낙오자 없이 산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행의 묘미인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이석구상무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따뜻한 봄을 맞아 KC여러분들도 직원들끼리 가까운 산을 등반해 보심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 월영산 및 직원 단체사진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KC코트렐] 제철사업부 WORK SHOP

제철사업부에서는 2011년도를 맞이하여 지난 3월 12일 토요일 본사 회의실에서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가까운 행주산성으로 이동하여 식사와 운동경기를 가졌습니다.

KC코트렐의 2011-2013년도 제4차 3개년 중기계획에 발맞춰 제철사업부의 '사업계획공유 및 기술경쟁력 강화'와 '조직활성화 및 커뮤니케이션 증대'의 목적으로 1년여 만에 가진 워크샵이었습니다.

우리사업부는 본사를 기준으로 하여 포항과 광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장 공사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파견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샵에 바쁜 현장공사로 많은 부원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2011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라는 부사장님의 말씀과 더불어 1조 Club에 가입하기 위하여 현재 업무의 개선할 점과 사회 변화와 국제정세에 맞게 '변화에 노력하자'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2011년 영업 현황분석으로 시장전략분석과 고객분석을 통하여 국내외 지역별 고객의 변화 및 경쟁사의 변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고, 제철사업부 4-3 운영목표를 공유하면서 철강업계의 영업 활동의 어려움 속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체 토론으로 다수의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노하우공유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System을 구축화 하자, 기술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자, 자료취득을 위하여 제안이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자, 제철공정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품목에 접근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고객과 시장의 재발견을 위해 제철사업부만의 CS(Customer Satisfaction) 활동방안을 만들었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행주산성에서 완연한 봄을 느끼며 막걸리를 곁들인 족구경기는 웅크렸던 마음과 몸을 재 충전하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KC코트렐 제철사업부 이종우 선임



▶ 워크샵 및 체육활동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안성유리] 기술연구소 정부기술개발 과제 “제조현장 녹색화사업” workshop 개최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당사 안성유리가 주관하고, 설비업체인 신한아펙스가 참여하여 현재 기술개발중인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워크샵을 1박 2일간 여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안성유리는 정부지원 과제인 『2010년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에서 선정된 “Glass 용해라인의 폐열 재활용을 통한 배출가스 처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정부기술개발 지원금 2억2천4백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기술개발 사업은 열 교환 시스템과 폐열 Steam Heater를 이용,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목표관리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과제로 평가되어 제조 현장 녹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이미 2011. 3월부터 현장에 설치하여 시운전 및 Test 중이며 현재 특허 출원 중 입니다.

워크샵에서는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배경과 폐열재활용 방안 등의 발표, 참여 설비업체의 시스템 구조와 설비 유지보수 방법 등의 의견 교환과 연구개발 진도 진행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며, 정부과제 수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안성유리 기술연구소는 이번 정부기술 과제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하여 회사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열 교환 시스템 및 폐열 이용 Steam Heater



기술 연구소, 생산팀, 신한아펙스와 함께

안성유리공업(주) 기술연구소 배정환 차장 (jhbae@asglass.co.kr)

[KC 코트렐] 부산광역시 태양광 사업개발 협약식

지난 3월 16일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에서 남부발전과 KC코트렐을 비롯한 세일기술, 에프티이엔이, 조성전력 등의 협력사가 부산지역의 태양광 에너지사업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태양광사업개발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은 부산시와 남부발전, KC코트렐을 포함한 4개의 협력사가 상호 협력하여 남부발전이 사업성 평가 및 사업총괄을 주도하고 협력사가 사업제안서 제출 및 총 20MW규모의 태양광 사업개발 추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전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소유 대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남부발전과 KC코트렐을 포함한 4개 협력사는 6월 SPC(특수목적법인)를 공공 설립하고 설비운영 할 예정입니다.

KCSE/태양광사업팀 이은정 (eunjung@kc-cottrell.com)



▲ 조성전력컨소시엄 신윤조 사장(왼쪽부터), KC코트렐(주) 강태일 상무, 남부발전 녹색발전전략처장 이근탁 처장, 세일기술(주) 정중수 사장, (주)에프티이엔이 김경룡 이사.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KC 인사동정

4월1일 부로 3사에 임원 승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KC코트렐]

상무 승진 : 고덕명, 이태준, 김성진, 오강환, 송우일, 차순근

상무보 승진 : 오인석

[안성유리공업]

상무보 승진 : 이선영, 노성구

[NWL]

전무 승진 : 윤중석

상무보 승진 : 조철기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입사원 이선영” 인사 드립니다.

우선 사장님과 회사 동료 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승진의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저는 충실하고 든든한 안성유리 직원들과 함께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의 자세로 회사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선영 드림



안녕하십니까?

노성구입니다.

이렇게나마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드리며, 임직원들의 격려에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승진은 저보다 김정완사장님과 안성유리 임직원들의 한결같은 열의와 노고의 결과라 생각되오며, 앞으로 보다 큰 A- Project 의 성공적 수행 및 기존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유리업계의 선도적인역활에 앞장 서는 선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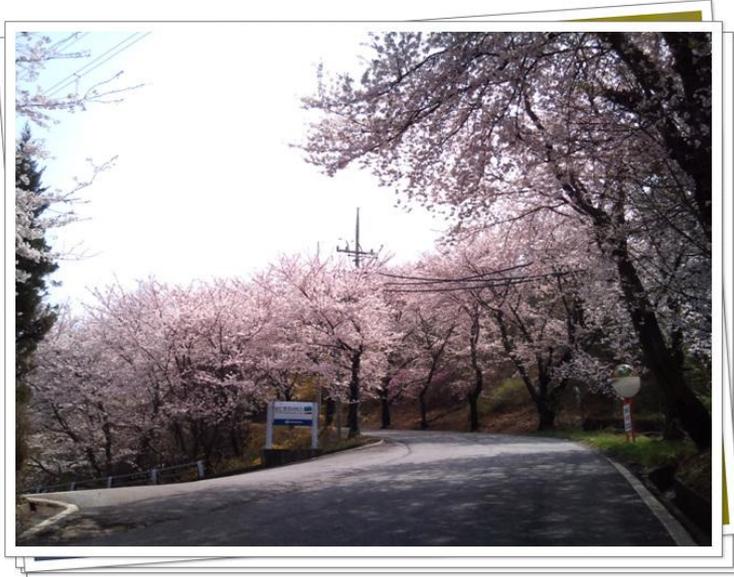
노성구 드림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남쪽 지방에 찾아온 봄소식



KC환경서비스의 봄 풍경입니다. 올해는 기상재해로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여 안팎으로 불안한 마음만 가득했는데, 남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개하여 분홍색으로 길을 물들이고 있네요. 전국에 있는 KC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고 싶은 마음에 KC환경서비스에서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제철소식] 파이넥스·선재·STS제강 공장 증설

파이넥스·선재·STS제강 공장 증설

- 2013년까지... 연인원 125만명 고용유발 예상
- 설비·원가경쟁력 향상 기대

포스코가 3월 25일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2013년까지 파이넥스·선재·스테인리스(STS)제강 공장을 각각 증설하기로 했다.

이들 3개 공장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면 연인원 125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포항 제철소의 노후설비 교체로 설비 경쟁력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연산 200만 톤 규모의 3파이넥스공장을 오는 6월 착공해 2013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파이넥스는 기존 고로 방식을 대체해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친환경 제철공법이다. 고로 대비 설비투자비는 20%, 운영비는 15%가량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쇠물제조 원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파이넥스공장은 향후 4선재공장 신설, 스테인리스 400계 생산설비 증설 등에 따른 추가 쇠물 수요를 충족하게 된다.

또한 연산 70만 톤 규모의 4선재공장을 오는 12월 착공해 2013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24만 톤의 선재를 수입했으며, 2012년에는 부족량이 17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선재공장 신설은 국내 중소 선재 수요산업의 소재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인리스 400계 생산설비 증설사업은 오는 12월 시작해 2013년 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탄소강 1제강 공장을 스테인리스 400계 전용 제강공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스크랩 대신 용광로에서 생산되는 쇠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800억 원의 제조원가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스코 신문(3/31, 제862호)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협약

28개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해외판로·컨설팅 지원

포스코가 협력 중소기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

포스코는 3월 23일 포항 청송대에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협약 체결식'을 갖고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엔지니어링·동방플랜텍·동주산업 등 28개 유망 중소기업과 관련 협약을 맺었다.

포스코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중견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하는 제품의 생산 원천기술을 보유하면서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포스코는 △기업주치의 제도 △보유 특허기술 이전 △공동연구 추진 등 다양한 기술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도 지원하기 위해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포스코가 진출한 해외 현지에 중소기업 전용 사무공간인 'Global Growing Center'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경영컨설팅 △테크노파트너십과 연계한 성과공유제도 △글로벌 혁신 마인드 향상 교육 등 경영 전 부문에 걸쳐 협력한다.

앞으로 포스코는 2015년까지 10개, 2020년까지 30개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이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식에 이어 올해 새롭게 선정된 42개 PCP (POSCO Certified Partner)공급사, 10개 월드베스트 월드퍼스트 인증 공급사에 대한 인증식도 함께 열렸다. > 포스코 신문(3/24, 제861호)

현대제철, 4월에 당진3고로 착공

정몽구 회장, 전경련 간담회서 밝혀
"4월 착공...3조3천억원 투자"

당초 5월경으로 예상됐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3고로가 한 달 가량 빠른 4월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수출·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3고로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회장은 "금년 4월 착공하는 당진 일관제철소 3호기에 3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이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약 10만명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날 발언은 당진3고로와 관련해 첫 번째로 밝힌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 회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올해 3고로를 추가로 건설해 연산 1,200만톤 고로 생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회사측은 구체적인 착공시기, 투자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3고로를 4월에 착공하게 되면 2고로 건설공기(29개월)를 감안했을 때 2013년 8월 이전 화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철강 신문 (3/21, 제1627호)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환율시장

일본발 악재의 그림자가 멀어지고 있는 지금, 환율 어디까지 무너지나?



원달러 환율추이 (2010.11.24~2011.03.31) 출처:외환은행

31일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7.50원 떨어진 109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08년9월10일(중가,1095.50원)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전 환율 수준이기도 하다.

◇ 환율 왜 떨어지나

지난 11일 일본 대지진 직후 1140원대까지 올라섰던 환율은 불과 20여일 만에 40원 넘게 하락했다. 세계 경기 회복에 기댄 글로벌증시 강세와 달러 유동성 확대, 엔화 약세 기조 등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선진국 저금리에 기댄 풍부한 달러 유동성, 국내 펀더멘탈 개선 기대, 원화 저평가에 따른 역외의 원화 매수 움직임 등도 최근 환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주요 7개국(G7)의 엔-달러 시장 개입 이후 엔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간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을 자극했다. 일본 대지진 직후 70엔대 후반에 머물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82엔대까지 올라섰다. 시장참가자들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화 매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서길 꺼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환 부산은행 금융시장지원부 부부장은 "서울환시를 둘러싼 대외 환경 모두가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며 "여기에 3월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 대내 환경도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 원-달러 향후 전망은

시장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시장 개입이 없는 이상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부장은 "환율은 이제 마땅한 지지선도 없다"며 "이제 환율은 리먼 사태 이전 최저 수준인 1080원대 진입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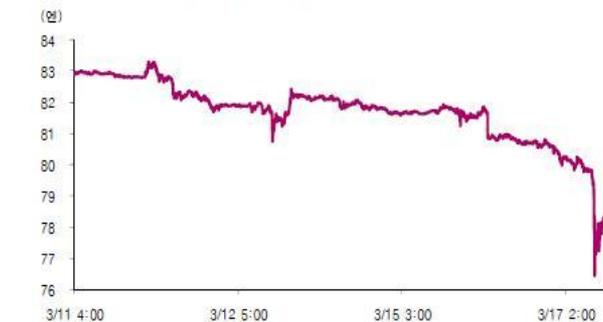
그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외화예금)도 환율 하락에 맞춰 서울환시에 쏟아지면 환율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 강화도 향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화 강세(환율 하락)에 따라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 매매뿐 아니라한 거래를 통해서도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향후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증시와 코스피지수가 조정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송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환율 향방을 전망하기에 앞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여부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면서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3번의 1,100원선 테스트가 있었지만, 운 좋게도 글로벌 증시 조정이 같이 오면서 추가 하락이 제한됐었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이번에도 환율 1100원선 붕괴와 맞물려 글로벌증시 조정이 연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주가지수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 환율도 추가하락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림 1. 대지진 이후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



자료: Bloomberg

<뒷면에 계속>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여기서 잠깐!!>

뉴스레터 3월호에서 예상환율은 1115~1150원이었으며, 실제환율은 약 1096~1141원이었다. 중동지역 정세 불안과 이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상단선을 넘어가는 상승흐름을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그에 따른 영향보다는 11일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1141원까지 치솟는 등 이벤트성 폭등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열도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선진국들의 저금리기조 및 국내 금리인상 기대감, 원화저평가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원화가 빠르게 하락흐름을 타고 있다. 이웃나라의 자연재해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지만 3월호의 환율 예상범위는 다소 신뢰할 만했다고 판단된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2011.03.31 환율 1,100원선 붕괴.. 향후 향방은 by 이성규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원자재 시장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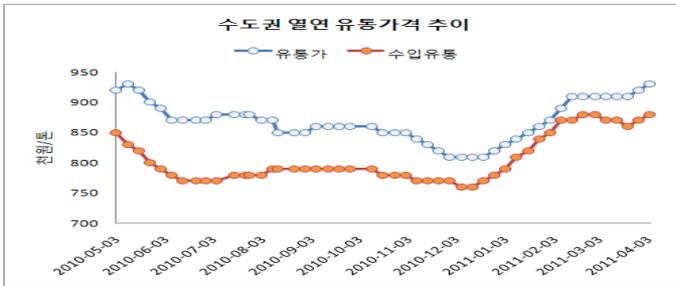
기획특집

[열연] 열연 유통, "호가 뭉박질"

- 일부 유통 호가 100만원까지 상승...SSC 재고 관리 들어가

[스틸데일리 04월04일]

포스코 가격 인상을 앞두고 시중 열연코일 호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시중 열연코일 호가는 현대제철 일부 대리점이 톤당 100만원을 제시하는 등 주요 SSC들이 잇달아 호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산의 경우 최근 톤당 95만원 수준까지 호가가 상승했다. 현대제철산도 최고 100만원 호가가 제시되고 있으며, 동부제철사도 93만원 수준까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 거래가격은 소폭 상승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대형 SSC들이 재고 관리에 들어간 때문. 매출 확보가 필요한 SSC들은 93만원 수준에 판매를 하고 있는 반면 재고가 넘거나 판매를 재고관리에 들어간 SSC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소 2만원 이상 호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생산업체들의 가격이 발표되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SSC의 호가는 크게 오른 반면 거래량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의 가격 인상이 지연되면서 시중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격 인상에 대비해 중소 실수요업체들의 구매량 증가로 재고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이다.



[냉연] 포스코 인상발표 지연 "냉연유통, 완전히 얼어붙었다!"

- 포스코 가격발표 아무도 확신 못해..시중 거래 "뚝"

[스틸데일리 04월04일]

포스코의 가격인상 발표 지연으로 냉연유통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포스코는 지난 1일 가격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날 발표가 없었고, 4일에도 언제 가격 발표를 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상폭도 계획안인 16만원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포스코는 물가를 잡으려는 대정부 설득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냉연유통시장에서는 포스코의 가격인상 소문이 지난해 12월부터 났었다. 이후 포스코가 1분기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리지 않았고, 2분기까지 지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냉연유통시장에는 시장거래가 완전히 뚝 끊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 및 냉연3사 냉연스틸서비스센터(SSC)들은 현재 제품을 팔지 않고 있다. 주문이 들어와도 재고가 없다는 식으로 판매를 거절하고 있다. 연계물량을 제외한 일반 유통판매는 완전히 접은 상태이다. 가격발표가 나더라도 결정되긴 마찬가지다. 포스코의 가격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냉연 3사들도 포스코와 똑같은 폭으로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하지만 냉연유통업체들은 이러한 큰 폭의 가격인상분을 시장에 반영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3월 시행한 할인을 폐지분도 시장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폭 가격인상분까지 동시에 올려야 하는 부담에 놓여있다. 유통업체에 따라 톤당 20만원 이상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냉연유통업체 관계자는 "한번에 대폭 가격인상을 단행하려 하는데다 발표까지 지연되니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시장왜곡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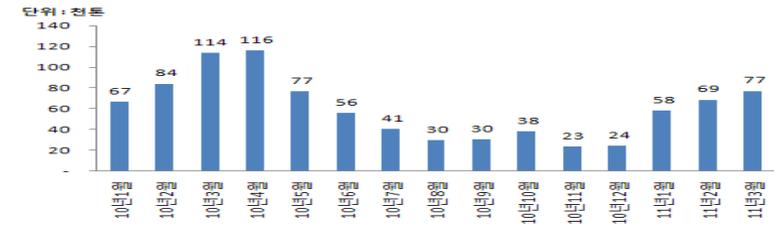
[형강] H형강 수입량 5개월 연속 증가...3월 7.7만톤

- 3월 H형강 수입 7.7만톤...10개월만에 7만톤 수준 회복

2011-04-04 09:05

H형강 수입량이 5개월 연속 상승 했다. 지난해 11~12월 2만톤 수준에 머무르던 H형강 수입량은 올 3월 7만톤 수준까지 상승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 H형강 수입량은 7만7,236톤을 기록했다. 작년 5월 이후 10개월 만에 7만톤 수준을 회복했다. 3월 수입량은 대부분이 중국산이 점유하고 있다. 3월 중국산 H형강 수입량은 6만톤으로 전체 H형강 수입량의 78.2%를 점유했다. 중국산 H형강의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728달러로 일본산 평균 수입가격인 톤당 752달러 보다 24달러 낮은 수준이다. 관련업계는 중국산 H형강은 보론 첨가 제품의 수입량이 늘고 있어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형강 월별 수입동향



자료 : 한국철강협회

[STS] STS 유통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에 '속수무책'

- 4월 포스코 300계 가격인하 불구 유통가격과 괴리감 벌어져

- 이번주 유통시장 실 거래가격 하향 예상 많아

2011-04-05 07:53

스테인리스 유통시장은 4월 들어서면, 이는 니켈 가격의 약세 더불어 수요 개선의 분위기가 거의 나타나고서 304 제품의 유통 거래가격이 다소 하향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4월 300계 가격 톤당 10만원 인하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서는 실 거래가격과 포스코 출하가격과의 괴리감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304 열연의 거래가격은 kg당 3,950~4,100원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304 열연은 주로 4,050원에 거래가격이 몰려있으나, 수입업체들의 가격이 kg당 3,950원에 형성되면서 이번주 국내 대리점들의 가격도 하향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 304 냉연의 304 냉연의 거래가격은 kg당 4,100~4,200원 수준에서 형성됐다. 보통 4,150원을 전후로 거래가 많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수준의 가격이면 국내 대리점들의 경우 열연도 마찬가지지만 냉연의 경우 손실판매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원자재 시장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일본 대 지진] 최악의 대지진으로 일본 전체가 도탄에 빠졌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철강업계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애도는 애도이고, 산업은 산업이다. 일본 지진은 전세계 철강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틸데일리 03월18일]

Q> 일본 고로사들의 피해상황은?

A> 피해를 입은 주요 제철소는 JFE 케이힌 제철소, 치바 제철소, 신일본 제철 카마이시 제철소, 키미즈 제철소, 스미토모금속 카시마 제철소로 파악된다. 이 중 JFE 케이힌 제철소와 치바 제철소는 13일 고로 송풍을 재개하고 고로 최소 가동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 라인인 대부분 정지된 상태이다. 신일본제철 키미즈 제철소는 설비를 재가동 중으로 고로는 풀가동, 압연라인은 일부 가동되고 있다. 1개월 내 복구가 전망된다. 피해가 심한 제철소는 신일본제철의 카마이시 제철소와 스미토모금속의 카시마 제철소이다. 카마이시 제철소는 선재 생산능력이 70만톤으로 공장 전체가 침수됐으며, 부두 파손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카시마제철소는 전라인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타 제철소 대체 생산 및 출하를 검토중이다. 카시마 제철소의 생산 능력은 연간 열연 500만톤, 후판 200만톤, 봉형강 100만톤 등이다. 생산과 하역 모두 중지돼 복구에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고로사 피해상황

제조사	생산능력	현 상황
JFE 케이힌	고로2기	최소 가동 중
	열연 360만톤	일부 라인 정지
	후판 160만톤	
JFE 치바	고로2기	최소가동 중
	열연 540만톤	일부 라인 정지
SMI 카시마	고로3기	전 라인 가동 중단
	열연 500만톤	복구 최소 3개월 예상
	후판 200만톤 봉형강 100만톤	
NSC 카마이시	선재 70만톤	공장전체 침수, 부두 파손으로 가동중단
	고로3기	고로 풀가동, 압연 일부 가동
NSC 키미즈	열연 600만톤	항만 설비파손으로 출하 영향
	후판 250만톤	

Q> 일본 철강제품의 품질은 괜찮을까?

A> 일본이 품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대지진으로 땅이 흔들렸기 때문에 공장이 기울어지는 등 공장기초가 틀어졌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복구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포스코 광양공장에서 과거 후판공장을 건설할 때 기초가 약간 무너진 적이 있는데 이 때도 한달이상 복구기간이 걸렸다. 판재공장들 같은 경우 두께 정밀도, 제강쪽에서의 세밀함이 요구되는데 지반이 1도만 기울어도 품질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계측기 오작동과 전력제한공급 역시 품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본이 생산한 제품의 방사능 유출도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의 철강제품은 품질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일본 철강사들이 품질이미지에서 타격을 입을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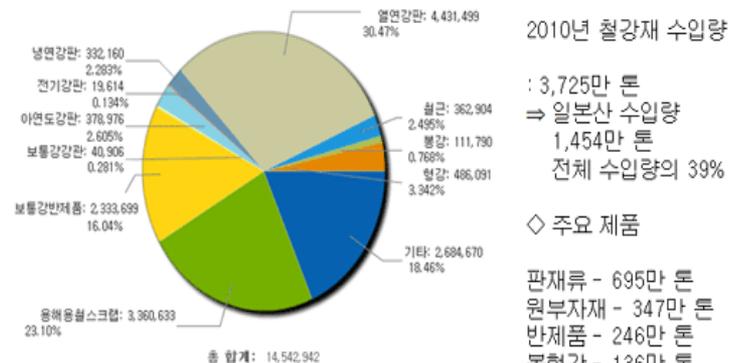
Q> 일본 지진이 판재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A> 일본산 수입 물량의 경우 대체가 가능하다. 열연코일은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 국내 생산이 많이 늘어났으므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후판의 경우에도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일본산을 대체할수 있다. 또 지진이 난 동부지역은 수출이 미미하고, 대부분 서부지역에서 수출이 많이 이뤄진다. 따라서 판재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판재류 업계는 수출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판재류 수출량 감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문이 한국 철강사들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강판, 가전용 강판 등은 마진확대도 기대된다. 하지만 향후 나타날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 카시마 제철소 외에는 악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자동차 부품 수급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포함제철소의 경우 설비부품 상당수가 일본산으로, 이러한 설비부품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이 사태의 여파는 단기간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야하므로 일본이 빨리 복구가 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Q> 일본 지진이 강관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A> 일본지진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문은 열연 등 소재다. 일본산의 경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비중을 높였고, 아직 소재에 여유가 있어 지금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더라도 주요 수입처가 중대형 강관사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소재 공급문제가 지속되면 국내와 중국 등지로 수요가 몰려 장기적으로 강관사들의 소재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출의 경우 아직 이에 따른 수혜는 크게 없다. 우리가 해외시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대부분 중국으로, 일본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아 이를 우리나라가 대체하기 어렵다. 지진복구를 위해 일본에서 강관을 긴급 수입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대세로 보기 어렵다. 일본 지진에따른 국내 강관사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0년 일본산 주요 철강재 국내 수입현황>



2010년 철강재 수입량
: 3,725만 톤
⇒ 일본산 수입량
1,454만 톤
전체 수입량의 39%

◇ 주요 제품

판재류 - 695만 톤
원부자재 - 347만 톤
반제품 - 246만 톤
봉형강 - 136만 톤,
강관 - 17.6만 톤 등

◇ 자료 : 한국철강협회

KC코트렐 노동조합, 국내외 빈곤아동 결연캠페인 동참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어린이재단과 KC 코트렐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 국내외 빈곤아동 결연 캠페인 -

참여자 : 민홍기 강영필 김성진 김기모 김기웅 김상록 김은경 김재필 김재현 김현수 남궁혁 모정옥 민태환 박성우
 박일봉 서동수 서성세 설정환 송진대 신용경 원유섭 원종웅 유제철 윤관구 이동훈 이건호 이원희 이재명 이종영
 이창석 장진락 전상근 전의순 전형일 정재선 조남천 최현규 최경배 최영식 한창호 허순범 황철구 전봉림

2010년 3월부터 KC코트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나눔 의식 확산을 위해 국내외 빈곤아동 결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외 빈곤아동 캠페인에는 총 43명의 조합원들이 동참하였으며 국내 결식아동 및 시에라리온, 세네갈, 스리랑카 아동과의 결연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만원의 후원금을 보내면 후원자와 결식 아동이 속한 마을이 연계되어 지역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KC코트렐 노동조합 회원이 후원신청을 할 경우 노동조합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연캠페인을 통해 연간 1,000만원 상당을 어린이재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국내외 빈곤아동 결연캠페인 포스터



- 아 동 명 : Sannie Kallon (남, 01A0025504)
- 생년월일 : 2005년 03월 05일
- 국 적 : Sierra Leone
- 후원자번호 : 18100014528
- 후원자명 : 원상근

Sannie Kallon 은 올해 7살 된 남자 아이로 시에라리온 북부에 살고 있는 귀여운 아동입니다.

사니는 부모님과 함께 진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소작농이며 한달 수입은 16000원 정도로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공부를 잘합니다. 사니는 건강한 아동이며 친구들과 과도 잘 어울립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은 아동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부르는 소리~ 희망나눔센터 1588-1940

홈페이지 : www.childfund.or.kr
 E-mail : help@childfun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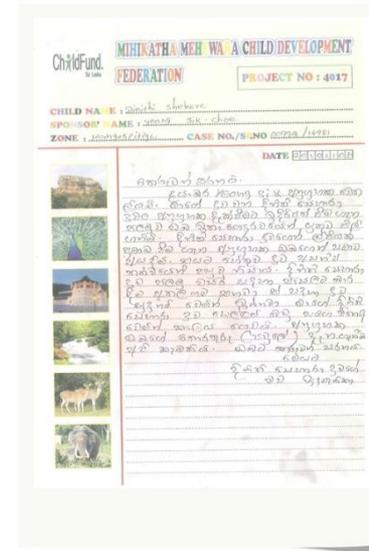
혹은,
 KC코트렐 노동조합 전상근(02-320-6298), 노조사무실(02-320-6133)으로 문의 바랍니다.

**무언가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중독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저는 가장 따뜻한 중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일, 바로 나눔이 그것입니다.
 최초의 나눔보다는 두 번째의 나눔이,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의 나눔이...
 더 향기로운 희망을 느끼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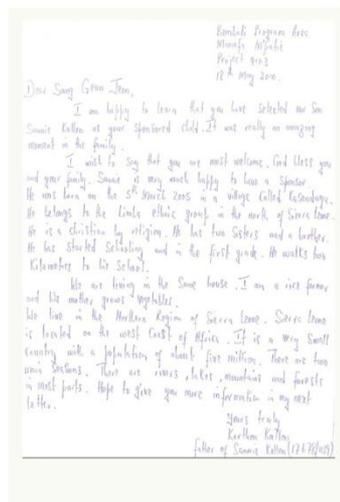
**지금, 나눔의 첫걸음을 내디딘 당신,
 함께 이 중독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합
경제 통합
기획특집-1



▶ 후원아동이 쓴 편지를 봉사자가 영어, 한국어로 번역하여 후원자에게 전달한 편지입니다.



후원자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아동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신나는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예방법종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들도 직업교육 및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후원 아동들은 꿈이 있습니다.
후원자께서 후원을 결심하신 순간, 후원자님의 사랑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줌은 물론, 아동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희망이 됩니다.
아이 혼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 힘들더라도, 후원자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작은 힘을 모아서 결식아동들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사내동호회 소개편 ③ KC환경서비스 “海山會(해산회)”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KC환경서비스의 海山회(산악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海山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창길 과장입니다.

저희 海山회는 2007년 7월, 8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5명으로 회원 수가 2배 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사에는 볼링, 축구 등의 다른 동호회가 있지만 철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들을 감상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우리 海山회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으로는 여수(호랑산, 백야도(백호산), 고락산), 순천(조계산), 구례(지리산(삼산재-불일폭포)), 광양(백운산), 장흥(천관산), 여수(향일암), 구봉산, 광양(억불봉), 여수(봉화산-영취산), 지리산(천왕봉), 경남(사랑도), 고흥(팔영산), 해남(대둔산), 제주도(한라산)산행을 꿈울 수 있습니다.

같은 산이라도 어제 갈 때와 오늘 갈 때 느낌이 다르고, 회원들과의 우정도 돈독해지는 등산...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우리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산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아란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라도 당장 가까운 산에 봄소식을 접하러 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KC환경서비스 영업팀 과장 김창길



공성-인들밭 등위컷-같이 언다-

▲ 해산회 등반 사진 모음



장덕: 박형준에 품에 앉은볼*오래 서시오~*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3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 마이입니다!

Xin chao (씬짜오)!

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마이입니다^^

저는 국민대 기업경영 MBA 과정에서 베트남 장학생 선발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한국에 거주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낮에는 인턴사원으로 일을 하였고, 밤에는 MBA과정을 밟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힘든 만큼의 값진 경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온 것에 대하여 힘들었던 시간들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이 글을 쓰기 전 어떤 말을 써야 할 지 많이 부담도 되고 어떤 내용이 좋을지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곳에 와서 감사해야 할 분들도 너무 많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 같습니다.

KC Cottrell 대표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지 못하였음에도 늘 친절과 웃음으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또, 이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목도모의 시간도 많이 가지고 활기찬 회사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온 모든 시간들은 베트남에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 베트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C Cottrell은 베트남 지사를 두고 있고 여러 프로젝트로 현지에 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못 가신 분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

베트남에서는 ...

1. Phuong (프엉)꽃. Phuong는 한국말로 봉황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꽃잎이 봉황 꼬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하이퐁시는 봉황꽃 도시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5월에 나무 밑에 앉아 하늘을 보면 다 붉은 색입니다. 이 꽃은 여름방학이 시작할 때쯤 제일 많이 피어서 학생 꽃이라고도 합니다.



2. 오토바이: 한국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외국사람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베트남 교통시스템은 정말 최악의 조건이고 또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세 때문에 차 값이 너무 비싸서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도 매일 보고 이요하는 것이라 나름 생활 속에서 정이 들었는지 인상 깊었습니다. ^^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3

3. 설날은 엄청난 꽃들로 거리를 장식하며 조상님께 음식을 차려 지내는 날입니다. 한국에도 설날에 차례라는 문화가 있듯이 베트남에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설날을 혼자 보냈을 때에는 고향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4. 길거리 노점상

한국의 시장과 비슷하죠?



5. 산골...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방문했던 Sapa 라는 지역입니다. 논도 계단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베트남 민족은 약 54개로 이루어져있고 주로 85% 이상은 Kinh족이며 나머지 족은 소수 민족입니다. 소수민족은 자기 문화, 풍습, 습관들이 다릅니다. 전통 의상도 정말 독특해요! 이 사진은 베트남의 대표 의복(아오자이)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소수민족의 풍습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려봤습니다.



요기 있는 너무 귀여운 여자아이는 제가 이세상에서 너무 사랑하는 제 딸이고 뒤에는 저입니다.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이 찡해집니다. ~너무 보고싶네요ㅠㅠ



이 짧은 글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모습들을 설명드리기엔 너무 짧지만 제 고향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소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뿌듯함을 느낍니다. 베트남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정말 뜻 깊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NTENTS

KC네트웍 소식
고객 통합
경제 통합
기획특집-4

안성유리 게시판 中에서 “칭찬 릴레이 3”



▲ 지성현님

▲ 임종례님

흔히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정보를 순간적으로 감지하고 정리하여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은 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성유리를 방문하시는 손님은 물론 직원들을 위하여 깨끗한 근무환경과 안성유리의 첫인상을 좋은 이미지로 심어주시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을 소개합니다.

직원들이 채 출근도 하기 전 새벽에 나오셔서 사무실을 비롯하여 조경 및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주시는 임종례님과 지성현님 두 분을 칭찬합니다. 특히 지성현님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장 울타리 주변의 잡목제거는 물론 배수구 청소까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깔끔하게 청소하셨네요? 그리고 지저분하다고 생각될 쓰레기 분리수거 장을 아주 보기 좋게 정리정돈 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식당의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 몇 년간 잘 쓰고 계신 임종례님. 모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직원들이 가지도 않는 곳까지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1. 분리수거 폐지정리 2. 일반쓰레기 3. 울타리 주변 잡목제. 4. 울타리 주변 배수구 청소(파유리아적장)

- 이선영 2011-03-24 19:39:51 123.142.51.xxx
두분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원시 연방 광장이 두분으로 인해 깨끗하고 청결해서 솔직한 직원들이나 회사를 방문하시는 외부 인사들께 기분좋은 첫인상을 느끼게 하시지요. 무엇보다도 하시는일을 정성스럽고 사랑하시는 모습에서 많은걸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 하시며, 오래도록 안성유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석구 2011-03-25 08:23:37 123.142.51.xxx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두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견의 분들과 달리 두분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소라는 업무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사소한 일에서도 일하시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쓰레기장 가지 정리해 놓으신 지성현 사무님의 솜씨에, 그 정성에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두분의 노고가 안성유리의 이미지를 보다 밝고 아름답게 남겨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배우시다.
- 김정환 2011-03-25 09:28:41 192.168.140.xxx
지난 화요일 공장을 둘러보면서 위 사진과 같이 잘 정리되어 있는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보고 견학을 팀장과 함께 지성현님 수고에 감사하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자주 보는 임종례님도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 어머니와 같은 쏘근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누가 요구하기 이전에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잘 일을 완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료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우리 안성유리 직원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 안우림 2011-03-25 11:18:56 123.142.51.xxx
항상 웃으시면서 낮은 곳에서 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김정옥 2011-03-25 12:44:16 218.65.232.xxx
지성현아저씨 임종례아주머니 회사서 이렇게 부르지만 두분의 일이지만 무척이나 고맙지요. 특히 저에게는 지성현아저씨가 최고로 고마웁니다. 주변의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 제조현장의 많은 배출물들을 안전하게 정리해서 분리해서 재활자극 쓰레기장에 쌓아놓아오시니.. 부끄럽지만 하네요. 우리 제조사원들은 아저씨께 '참' 이라고 임종례아주머니 2층 복도 계단청소할때 바닥의 기름기 신발자국에 힘겨워 하시죠. 제가 우리가 고마움의 보답은 할부로 버리지만 않는다면 곁들때 걸질 풀지만 않는다면 두분께대한 배려가 아닌거같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정한이 두분은 보살수 있을까요?
- 이봉현 2011-03-25 15:12:09 123.142.51.xxx
김정옥씨~~귀찮아세요. 제가 직접 봐드리고 먹고도 출력해서 전달해 드릴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성현님 임종례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네요. 누가 보다 언더도 최선을 다할때 인정 받기 힘들 다사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흠~~그렇다면 건 무엇을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나 고민됩니다만. 안성유리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하는데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드릴것이기에 대해해서 고민 하였습니다. ^^
- 전만용 2011-03-25 15:40:45 123.142.51.xxx
회사에 출근하면 항상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분리수거장에 정리정돈 된 모습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 안성유리 자유게시판 댓글